데스크 시각

언제까지 이념의 감옥 속에 가둬 둘 것인가

송기동
문화2부장·편집국 부국장

1930년 10월 20일 광주지방법원 1호 법정. 광주학생독립운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비밀결사 모임 성진회(醒進會)와 관련해서 장재성(당시 22살) 등 3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일본 검사는 '치안유지법 위반' '보안법 제7조 위반' 등 죄목을 붙여 징역 7년부터 1년까지 중형을 구형했다. 검사의 전례 없는 구형이 끝나자 35명의 피고들은 '법정이 문허질 만치(무너질 만큼) 고성대소(高聲大笑)'하였다.

1주일 후인 10월 27일 궁본(宮本) 재판장은 검사의 구형대로 판결했다. 광주 학생독립운동 관련 판결 가운데 최고로 높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장재성은 재판장을 불러 세우고 방청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조선 학생이 과학(科學)을 연구한 사건에 치안을 방해하였다고 치안유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절대 반대요. 조선학생 만세!"(동아일보 1930년 10월 28일자)

당시 1심 신문기사를 들추다 보면 청년 장재성과 학생들의 항일 의기(義氣)가 느껴진다.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촉발된 학생독립운동은 서울과 원산 등 전국 각지로 들불처럼 확산되며 전국적으로 194개 학교 5만4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그래서 광주학생독립운동은 3·1운동, 6·10만세운동과 더불어 일제강점기 3대 민족운동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확산시킨 중추적 인물이 광주 출신인 장재성(1908~1950) 선생이다. 그런 만큼 광복 이후 독립운동가로서 당연히 정부의 인정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복 후 선생의 조선공산당 가입 경력 때문이다.

성진회 결성 독립운동가 장재성

광주 시내에 남아 있는 장재성 선생의 발자취는 희미하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 4가 금남로 공원에 옛 '장재성 빵집'과 '김기권 문방구점' 자리임을 알려주는 표지석이 있을 뿐이다.

1908년 광주군 광주면 금계리(현재의 동구 금동)에서 태어난 선생은 광주고등보통학교(광주고보·현 광주일고)에 다니던 1926년 11월 3일에 왕재일·최규창·안종익·박인생 등 15명의 학생들과 함께 비밀결사인 '성진회'를 결성한다. 모임 이름은 '깨달아(醒) 나아가자(進)'는 의미를 담았다. 총무에 왕재일, 서기에 박인생, 회계에 장재성 등 집행부를 꾸려 조선독립을 염두에 둔 독서와 토론을 비밀리에 했다.

선생은 광주고보 졸업 후 도쿄 주오(中央)대학 예과에 입학했으나 학업을 중단하고 광주에 돌아와 각 학교 독서회를 연결한 '독서회 중앙부'를 결성, 책임비서를 맡았다. 이때 현재의 금남로공원 자리에 있던 일본식 2층 목조건물을 임대해 '장재성 빵집'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모임 장소로 제공했다.

1929년 11월 3일 선생은 가두시위에 나선 학생들에게 "용감한 조선인의 기상이었고 또한 대승리였다"고 격려하면서, 투쟁 대상을 일본 제국주의로 돌려 대규모 집단 가두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11월 12일 이어진 제2차 시위에서도 성진회 회원들과 함께 '조선민중이여 궐기하라!' 등 네 종류의 격문을 작성했다.

장재성 선생은 1945년 광복 이후에도 '건국준비위원회' 전남지부 조직부장과 '민주주의 민족전선'(민전) 전남 대표를 맡아 활동했다. 1948년 '해주 인민대표자회의'에 참석한 뒤 이듬해 4월 서울에서 경찰에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광주형무소에 갇혔다. 그런데 선생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5일 120여 명의 좌익 사범들과 함께 북구 산동교 인근 '불갱이 고개'(불공 고개: 당시 광주 광산군 극락면 동림리)로 끌려가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국군 5사단 헌병대에 의해 즉결 처형됐다. 최근 일부러 찾아가 본 집단학살 현장은 아파트 단지로 변해 있었다.

역사적 재평가와 서훈 이뤄져야

5·16 직후인 1962년 해방 후 처음으로 시행된 독립유공자 서훈 과정에서 내각 사무처는 '해방후 조선공산당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라며 장재성 선생의 서훈을 취소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자에 대한 서훈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2020년 같은 이유로 선생의 재신청을 보류했다.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일지라도 이데올로기의 잣대를 가지고 나누는 기준은 바뀌어야 한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주역 장재성은 정당한 역사적 재평가와 함께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선생의 신원(伸寃: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 줌) 사업이 절실하다. 오는 5일은 선생이 마흔두 살 한창 나이에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지 꼭 71년이 되는 날이다.

/song@kwangju.co.kr

社說

'달빛내륙철도' 동서화합 20년 숙원 풀린다

영호남 지역의 20년 숙원사업인 '달빛내륙철도'가 가까스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 기사회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을 확정했다.

달빛내륙철도 사업은 국토부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초안에는 '검토사업'으로 선정됐다가 이번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됐는데, 광주 송정과 서대구 간 199㎞ 구간을 잇게 되며, 사업비는 총 4조5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 공약 사업이기도 했다. 또한 영호남 교류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하지만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주~대구 사업은 6개 광역 시도를 경유해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거점 간 연결성 강화 효과가 크다"며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횡축 철도망을 확대하는 등 정책 필요성을 고려해 사업에 추가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달빛내륙철도가 국가 계획에 최종 반영됨으로써 이 사업이 완공되면 영호남을 하나로 잇는 광주~대구 간 한 시간대 고속철도 연결이 가능해진다.

또한 양 지역 20년 숙원사업으로 동서화합과 남부내륙경제권 형성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도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철도로 한 시간대에 영호남 시도민이 왕래하고 양 지역의 산업과 물류, 정보와 문화관광을 교류하는 시대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국가계획에 포함됐다고 해서 바로 고속철도 사업이 추진되지는 않으며 단지 첫 관문을 통과했을 뿐이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와 예산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따라서 앞으로 양 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 및 경제계 등이 하나가 되어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순사건 피해자 명예 회복의 길 열렸다

현대사의 아픈 상처인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건 발생 후 무려 73년 만에 희생자 명예 회복과 유가족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전남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최초 구성 후 2년간 진상규명 조사권, 조사 대상자·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및 출석요구권을 갖는다. 특별법은 또한 국가가 희생자에게 의료·생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여순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묘역과 위령탑, 여수·순천 10·19 사건 사료관, 위령공원 등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 중이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민간인 등 1만여 명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여순사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었던 제주 4·3사건은 이미 지난 2000년 특별법이 제정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졌지만, 여순사건은 제16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수차례 특별법이 발의되었으나 야당의 반대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다행히 여야 합의로 이뤄진 이번 법안 통과에는 대표 발의에 나선 소병철 의원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과 여수·순천시 및 유족회 등의 노력이 큰 몫을 했다. 하지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 생존자들은 지금 대부분 고령이다. 따라서 진상규명은 물론 그에 따른 명예회복과 국가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서둘러 고통 속에 살아온 그들의 한을 하루빨리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은펜칼럼

다행이다

고성혁
시인

절망과 희망 사이에는 '포기'가 있다. 포기를 통해야만 희망에 이를 수 있으니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포기해야 생의 봉우리에 도달할 수 있는 삶의 절절한 법칙. 그런 까닭에 내미는 모든 손을 잡을 수는 없다.

어미 닭이 제가 깬 새끼들을 쫓고 있다. 어제 오후 새끼들을 피해 횃대로 올라가더니만 오늘 아침부터는 아예 부리를 들이대며 제 새끼들을 쫀다. 정을 떼는 게 분명하지만 먼발치서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프다. 얼마나 지났을까. 병아리들이 포기한 듯 구석으로 물러나 어미를 보며 옹송그리고 있다. 녀석들아, 너흰 알을 깨고 나왔잖니. 또 다시 알을 깨야 해. 그래야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야.

녀석들의 어미는 암탉 중 가장 약한 놈이었다. 모이를 주면 다투기는커녕 도망가기 바빴고 겁이 많은 까닭에 이상한 기미만 있어도 제풀에 놀라 풀쩍 날아오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로 솟구쳤다. 한 번의 도약으로 2.5미터를 날아 닭장 지붕에 꼿꼿이 서 하늘을 우러르고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신기했다. 녀석에게도 신세계였을 것이다. 녀석은 멀거니 쳐다보는 나를 힐끗 보더니 대숲으로 날았다. 녀석을 찾아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숲과 닭장을 기웃거렸다. 종적이 묘연했다. 하지만 녀석은 그런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저녁나절 닭장 안으로 내려앉았다. 그 일은 매일 반복됐다. 녀석은 도대체 무얼 하고 다니는 걸까. 그러기를 한 달여. 어느 날부터 녀석이 귀가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잡듯 숲속을 뒤졌다. 산 그림자가 드리운 해거름, 나무 밑 구석진 곳에서 아내의 탄성 소리가 들렸다.

아, 찾았네, 빨리 와 봐.

산짐승이 출몰하는 산기슭, 커다란 참나무 아래 녀석이 웅크리고 있었다. 웅크린 바닥은 경사진데다 울퉁불퉁했다. 펼친 날개로도 다 덮지 못한 알이 살짝 비어져 보였다. 아래 풀숲에는 몇 개의 알들이 흩어져 있었다. 흘러내린 것들을 포기한 채 남은 알들을 품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전율이 일었다. 녀석이 마침내 알을 품은 것이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녀석을 경외의 마음으로 바라봤다. 둥지 위에 패널을 덮어 은폐했다. 비바람 때문에 비닐도 덮었다. 물과 모이를 녀석의 발밑에 두고 매일 동태를 살폈다. 녀석은 화답이라도 하듯 꼼짝 않고 알들을 품었다. 그러던 어느 아침 숲속에서 병아리 세 마리가 무지개처럼 나타난 것이다. 가슴이 뭉클해 탄성이 절로 나왔다. 풀숲을 헤치며 날갯짓을 하는 병아리들. 앙증맞은 그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닭장 안으로 옮겨놓은 뒤에는 병아리 근처에 그림자만 스쳐도 깃털을 세우며 덤벼드는 어미닭을 보며, 어린 시절 공사장 벽돌을 이어 나르며 우리를 키우신 어머니의 고무 대야를 떠올렸다. 그 순정한 모성애 때문이었을 것이다. 병아리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랐다. 그동안 우린 정말 행복했다.

20일이 지나자 병아리들 몸집이 주먹만 하게 커지더니 이내 꽁지가 도드라졌고 꼬리 깃을 세우려는 듯 끝 모양도 부풀어 올랐다. 그것이 표식이었을까. 어미가 제 새끼들을 쪼기 시작한 것이다. 병아리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도망가다 몇 번이고 되돌아서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완전하게 정을 떼려는지 어미는 가까이 오는 새끼들을 더욱 세게 쪼았다. 녀석들은 결국 컴컴한 구석으로 피했고 어미는 틈을 타 닭장 밖으로 나가버렸다. 한동안 저희끼리 모여 힘없이 재재거리는 병아리들. 얼마 후 잊어야 한다는 듯 땅을 헤적이기 시작했다. 안타까움으로 가슴이 찡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다. 포기는 희망으로 건네는 징검다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이 있어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우월하다고 했지만 탐욕을 가진 유일한 생명체라는 점에서 인간은 가장 하등한 생물체임이 분명하다. 알을 쪼아 새끼들을 깨낸 뒤 다시 생이별의 방식으로 생존의 원칙을 전하는 어미 닭의 진실을 보면서 배려와 절제 대신 탐욕으로 지리멸렬의 병든 지구를 물려주는 인간을 생각한다. 인간의 문명이란 실은 욕망이 빚은 유리 허상이 아닐까. 병아리들이 몰려다닌다. 이제 두려움을 잊은 듯싶다. 이리 생각만 많은 내가 저 병아리만도 못한 것 같아 부끄럽다.

기 고

시작은 언제나 여기서

신용목
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시인

추모시는 되도록 쓰지 않는다. 거절에 성의가 있을 수 없겠지만 성심을 다해 사양했다. 추모의 마음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내 전부라 하더라도 나의 글이 그들의 삶을 다 받아낼 수 없다는 걸 알았고 그에 뒤따르는 부끄러움이 늘 내 시를 앞질렀기 때문이다. 마음에 걸리는 일이 또 없지는 않아서 나는 누군가를 추모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을 복원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것이 '나의 끝 거창'이란 시집이다. 무엇이든 볼 수 있는 만큼만 말할 수 있고, 어디든 돌아올 수 있을 만큼만 갈 수 있다고 믿었다.

내가 고등학생일 때만 해도 '오월 광주'는 알 수 없었고 알아서도 안 되었다. 진실은 오직 광주에만 있었다. 대학에 간 선배들로부터 귀동냥을 한 우리는 서너 명씩 나누어 광주행 버스를 탔다. 거창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하루에 두어 대밖에 없었고, 그마저 남원을 경유했는데 그 어름엔 어김없이 검문이 있었다. 우리는 지도를 보고 미리 외워둔 대로 산수동이나 운남동 어디 있지도 않은 친척집을 대야 했다. 금남로를 밟았고 분수대를 보았으며 YMCA 회관에서 '학살2'를 낭독하는 김남주 시인의 칼날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

문제는 숙소로 가기 위해 대열에서 벗어났을 때였다. 하얀 파이버 체포조 두 명이 우리를 쫓아온 것이다. 미리 약속한 대로 흩어졌는데, 그 중 한 명이 하필 나를 선택했다. 달리기라면 자신 있었지만 역시나 그가 더 빨랐다. 나는 골목을 두 번 꺾어 2층 건물에 들어섰다. 1층이 잠겨 2층으로, 2층이 잠겨 옥탑으로 올라갔다. 옥상 문도 잠겨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사복경찰은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자리 계단에 쪼그려 앉았을 때, 처음 들었다. 열일곱 내 심장 소리가 내 몸을 울리고 불 꺼진 옥탑을 울리고 캄캄한 2층 건물 전체를 울리고 있었다. 이 이야기에 나는 '시'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 후 모든 게 달라졌다. 평화롭던 세계는 적대와 모순으로 가득찼고 예속 속에서는 어떤 자유도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었다. 그것이 아니면,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순간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불행한 미래를 앞서 기억하는 습성 말이다.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서 그 상실의 공포가 세계를 온통 슬픔으로 에워쌀 때. 예컨대 사랑과 젊음이 그러해서 그 순간의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사는 것이다.

아무래도 지금의 나는 팬데믹이 불러온 소외와 결락의 불안감 전부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거기 달라붙는 불평등과 고통의 차이를 마저 체험할 수도 없다. 하지만 내가 만나는 학생들 속에 여전히 숨어 있는 나를 만나곤 한다.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순간을 여전히 알 수 없는 삶이라는 이름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마음들 말이다. 아니, 그 시절 내가 광주에 올 때마다 빈 강의실에 박스를 깔고 하루이틀씩 묵었던 장소가 지금 학생들과 시를 공부하는 조선대학교 본관이었으니, 설령 착각일지라도 아예 근본 없지는 않다고 떼를 쓸 참이다. 그렇다고 딱히 달라질 건 없지만 여기서 시작할 수는 있을 것이다. 시와 이야기와 불가능한 상상을.

위기를 기회로 바꾸라는 말은 대체로 처세에 쓰인다. 그런 기회는 얻기보다 빼앗는 것이고 그게 능력이면 함께 살아가는 감각을 폐기하며 발휘된다. 다행히 팬데믹 덕에 우리의 자유는 조금 더 분별력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 인권과 관련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공공선'에 대한 적극적인 사유가 인권과 꼭 무관한 것만도 아니다. 재난에 대응하는 자원의 활용을 '지원'이나 '복지'라는 수혜의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가치로 받아들일 기회를 주었으니까. 지금이야말로 공동체의 기획이 가능한 시간일지도 모른다. 그 시들을 쓰면서 알아버렸다. 매순간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와 있다.

無等鼓

낙지 다리

낙지와 오징어는 다리 개수(個數)로 구별할 수 있다. 오징어 다리는 10개지만 낙지는 8개다. 북한에서는 낙지와 오징어를 우리와는 반대로 부른다. 북한 '조선말대사전'은 다리가 열개인 것을 낙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어·낙지·주꾸미 등 문어과에 속하는 연체동물은 모두 다리가 8개다. 이들의 영어 명칭에 공통으로 '8'을 의미하는 '옥토퍼스'(Octopus)가 들어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리 특징에 따라 크기가 가장 큰 문어는 '자이언트 옥토퍼스'(Giant octopus), 길이가 긴 낙지는 '롱 암 옥토퍼스'(Long arm octopus), 발갈퀴 모양인 주꾸미는 '웹풋 옥토퍼스'(Webfoot octopus)라 한다.

예전에 어머니는 낙지를 살 때는 다리 개수를 잘 보고 사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혹시라도 다리가 하나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것은 수컷인데 짝짓기를 막 끝낸 놈이라 영양가가 없다는 것이었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집낙지'의 번식 습성을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심해에 사는 집낙지와 집낙지의 일종인 '조개낙지'는 암컷을 만나면 자신의 생식기를 떼어 버린다. 떨어진 생식기는 스스로 헤엄쳐 미사일처럼 빠르게 암컷에게 다가간다고 한다.

신안 압해도는 낙지 다리에서 지명이 유래됐다. 읍사무소를 중심으로 낙지 다리가 세 방향으로 뻗어나가면서 바다와 갯벌을 누르고 있는 형상이라 누를 '압'(壓) 자와 바다 '해'(海) 자를 썼다.

무안군의 낙지 조형물을 두고 때아닌 다리 갯수 논란이 일고 있다. 내일 개장하는 망운면 낙지공원 야영장의 대형 낙지 조형물 전망대의 다리가 6개로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무안군은 낙지 다리가 미끄럼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적 감각과 안전성을 감안해 다리를 6개로 만들었다고 해명하지만 주민들은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09년 준공한 무안 종합스포츠파크 음수대의 낙지 조형물 다리는 9개로 돼 있다. 그냥 작품으로 봐 달라는 것이 무안군의 입장이지만, 이처럼 다리 개수가 제각각이다 보니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장필수 제2사회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